장사선/ 홍익대학교문과대학장
by Chang Sa-seon

건축과문학이야기

Architecture and literature

건축과문학은전혀다른분야인것같지만, 상호관계는의외로깊다. 건축이인간의여러가지생활을담기위한것이고쾌적하고도안전한생활의영위를위한것이라면, 문학또한인간의생활을어떻게영위할것인가를심도있게형상으로고민하는것이기에우선닮았다. 문학이말과글이라는언어를매재로하나의예술적형상을갖는구조물로만들어예술적감흥을일으키려한다면, 건축또한진실하고도견실한구조기술로편리성과유용성으로서의기능을추구하며벽돌과시멘트로예술적감흥을만들려한다.

동서양의많은시나소설에는건축사의고뇌와성공이담겨있고, 그들의사랑이나상상이배어난다. 때로는건축사들의무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작품도있는가하면, 현대건축에 대한 신랄한비판도있다. 이들작품은건축사들에게인간의이해를통한새로운건축의길을제시하기도해줄것이고, 현실적건축에의또다른상상력을제공해주기도할것이다. 문학에대한이해없는건축사는인간에대한이해가있을수없고, 인간에대한이해가없는건축사가만드는것은한낱시멘트덩어리가되고말수도있다.

건축과문학의조화

문학과건축을이야기하면서한국문학을범위로잡는다면많은사람들은이상이라는괴팍한작가를떠올리지않을수없고세계문학을향한다면폴발레리를꼽게된다. 이상은한국문학에서가장건축과가까운작가였다. 그가경성공업학교에서건축을전공했고, 조선건축학회지<조선과건축> 표지도안공모에두번이나입선하였고, <건축무한육면각체>, <오감도>(건축용어인‘ 조감도 ’의언어유희) 등많은작품에서건축적상상력을발휘하여한국문학의신세기를만들었다. 그는한국문학연구사에서가장많이연구된작가이다. 프랑스의시인 · 비평가 · 사상가이자 20세기최대의산문가중한사람으로꼽히는폴발레리는<건축과시론>으로도유명하다.

한국문학에서는문학을건축에비유해논쟁을벌였던적이있었으니, 김팔봉과박영희의내용형식논쟁이그것이다. 김팔봉은“ 소설은한개의건축이다. ”라고했고이에맞서박영희는“ 소설로서완전한건물을만드는것은시기상조이다. ”라는말로맞섰던적이있다. 이상적소설은내용과형식이온전하게구비된하나의건축물이어야하고, 이상적건축은이상과현실이조화롭게어울린것이어야할것이다.

건축을비판한문학

1930년대이상의소설<날개>에나타나는 18가구가어깨를맞대고늘어서서창호가똑같고아궁이모양이똑같은집을제외한다면, 한국문학에서집단주택이나아파트문제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것은 1950~60년대부터였다. 편의화되어

동서양의 많은 시나 소설에는 건축사의 고뇌와 성공이 담겨있고, 그들의 사랑이나 상상이 배어난다.
때로는 건축사들의 무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작품도 있는가 하면, 현대 건축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다.
이들 작품은 건축사들에게 인간의 이해를 통한 새로운 건축의 길을 제시하기도
해 줄 것이고, 현실적 건축에의 또 다른 상상력을 제공해 주기도 할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이해 없는 건축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축사가 만드는 것은 한낱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말 수도 있다.

가는건축문화가인간을행복하게하기보다는인간을소외시키고고립시킬것으로보았다.

김광식의소설<213호주택>의주인공은집모양이똑같은주택단지의자기집 213호를잘못찾아남의집으로잘못들어가도둑으로 몰려 경찰서유치장신세까지진다. 이 작품은 기계때문에 실직당한 주인공이 기계문명에예속되어규격화된 삶의 틀에적응하지 못하고소외되고만상황을형상화했다. 1970년대들어, 최인호는<타인의방>으로, 박완서는<닮은방들>로, 그리고강석경은<숲곳의 방>을통해, 남과닮기위해애쓰며아파트에살게된인간이결국개성이죽어버린생활이나고립감, 자아상실에매몰된일상의나락으로떨어져버릴것을비판했다. 현대인의단조로운삶과기계문명이지배하는비인간적인상황기계적인삶의상황에서소외를극복하고자기삶을회복하려는모습을형상화한것들이라고할수있다.

개성상실의건축을비판한작품으로는, 일본의극우주의자로할복자살하였던작가, 미시마유끼오의<금각사>를들수있다. 주인공은“ 이런것이있어도 선종이란아무관계도없다. ”라고외치며금각에 불을 붙였다. 주인공은금각의미적아름다움과마력에영혼을 빼앗겼는가 하면, 그뒤에 감추어진 번뇌로인간의존재이유와윤리적 의무감을 반문했고, 마침내 역사적 건축물을 태워버렸다. 개성존중사상의청년이전통적건축을향해자기의위치를확고히하려는개성적행동을보여주려한것이아닌가여겨진다. 건축을이루는것도이상적건축관이겠지만건축을비판하고불태워없애는것또한이상적건축관으로부터오는것은아닐까?

건축관을고뇌한문학

건축을 둘러싼 이런 고뇌와 번민을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으로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인 랜드의 <수원>(원 제목은 The Fountainhead, 한국에서는 <마천루>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수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적이 있다.)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인간의이기심이인류발전의원천이라는도발적인철학을담고있는소설가의건축소설이다.

이소설의 주인공 하워드 · 로크는건축공사 노동자를 하면서 건축사를 목표로 해고학하면서다니고있던 대학을 돌연 중퇴하게 된다. 대학에서가르치는건축학에이의를제기한것때문에교수들의분노를샀던것이다. 그는고전건축을현대풍으로살리려는건축학에반기를들었다. 건축물의기능을최대한으로살리는획기적디자인과건축법등을그는추구했던것이다. 그가일류의건축사로인정되기까지의약18년간의고투를축으로전개되는이소설은단순한건축사의성공이야기는아니다. 건축사상투쟁이야기이다.

이소설의클라이막스는, 정부에의한대규모공공주택건설을로크가폭파하고, 재판에회부되는사건이다. 그에게있어서명성등은아무래도좋았다. 단지자신의이상을현실건축에살리는것만이소망이었다. 그러나프로젝트의공사내용은, 로크의원안으로부터 크게후퇴되고말았고, 로크는건설도중의공사현장을폭파했다. 로크가체포된것을알면, 도미니크는참지못할것이고, 그것은두명이은밀하게지켜온스스로의독립과사랑을더럽히게될것이다. 사선을헤맨도미니크에게도무서운것은없다. 로크가형무소에들어가도상관없다. 스스로의마음에충실하면아무것도무서워할것은없다는생각으로결국도미니크는로크를뒤따른다.